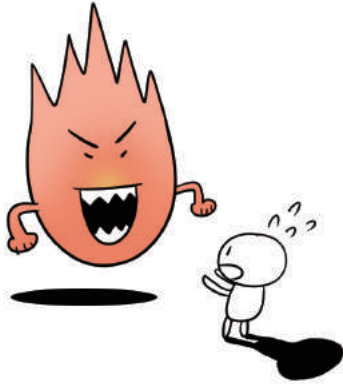


글·그림_김민석

가정 내 어린이 화상사고 주의하세요





최근 3년간 접수된 '만 14세 이하 어린이 화상사고'는 총 2,636건으로, 전체 화상사고의 39.7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어린이 화상사고의 대부분(88.2%/2,325건)이 '만 6세 이하 영유아'에게 발생

호기심과 활동범위가 증대되는 '1~3세 걸음마기'에 57.5%(1,515건)가 집중
'0세 영아기' 19.6%(517건) 등의 순

성별로는 '남아'가 57.3%(1,510건)
'여아' 42.7%(1,126건)

사고발생 장소

가정이 전체의 79.2%(2,087건)

가정 내 화상사고의 절반 이상(57.8%/1,206건)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한 가열 조리가 이루어지는 주방에서 발생하며, 침실·방 16.4%(342건), 거실 10.5%(220건) 등의 순

사고대상

전기밥솥 18.4%(484건)
정수기 10.6%(279건)
커피포트 9.2%(242건)
고데기 6.9%(183건)
다리미 6.0%(157건) 등

주의사항

전기밥솥 등 전열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.

어린이를 씻길 때는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.

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막아주세요.

〈화상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법〉

-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5~20분 정도 식힐 것
- 부종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지 등 장신구는 제거할 것
-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집은 터뜨리지 말 것
-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할 것

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를 찾아주세요.